

혐오스런 돼지고기

클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 1927~)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류학자 중 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인류학 이론의 등장' (1968), '식인종과 제왕 : 문화의 기원' (1977), '문화유물론 : 문화과학을 향한 투쟁' (1979), '문화인류학' (1983) 등이 있다. 그의 저서는 당대의 인류학 논쟁을 이끄는 활력소 구실을 했다. 그의 저서로 '성스러운 암소와 혐오스런 돼지: 음식과 문화의 수수께끼' (1985)는 세계의 기이한 음식문화에 관해 문화생태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저서의 4장 '혐오스런 돼지고기' 로 들어가 보자.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은 언뜻 보면 쇠고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돼지는 모든 포유류 가축 중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식물을 고기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 마리의 돼지는 평생 동안 그 먹이 속의 에너지 가운데 35%를 고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 돼지 본연의 본질은 인간의 영양과 즐거움을 위해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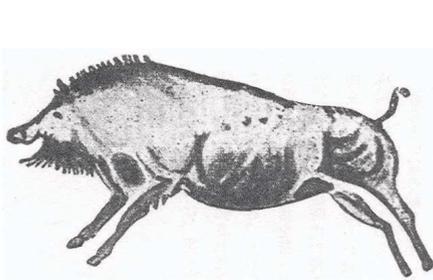
구약성서에 '먹어도 좋은 고기' 명시

구약성서는 먹어도 좋은 고기와 금지된 고기를 구분하는 정교한 규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더러운 습성이나 건강에 나쁜 고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먹어도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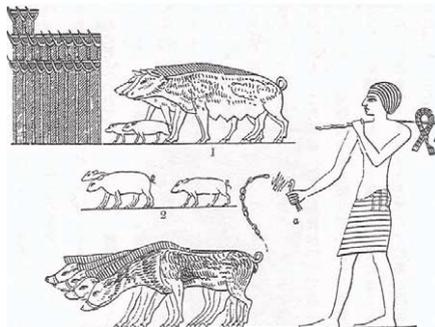
동물의 특정한 해부학적·생리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약성서 레위기 11장 3절은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기른 동물들 중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는 소, 양, 염소가 있었다. 이들 세 가지 동물은 고대의 중동지역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자기 멋대로 되새김동물이 먹기 좋다(그리고 그 젖이 먹기에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되새김동물이 섬유소를 많이 포함한 식물을 먹고 사는 채식동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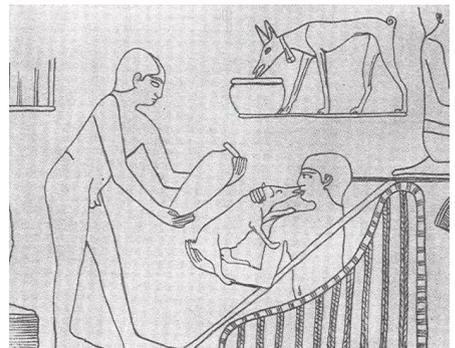
돼지는 잡식동물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사실 돼지의 소화기관은 원숭이와 유인원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포유류보다 인간과 흡사하다. 돼지가 동맥경화증, 열량과 단백질 결핍증, 영양의 흡수와 신진대사에 관한 많은 의학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돼지에게는 중동의 기후와 생태에 잘 적응할 수 없다는 추가부담이 있었다. 덥고 황량하고 태양이 내리쬐는 초원에서 살았던 소나 양, 염소의 조상과는 달리, 돼지의 조상은 물이 많고 그늘진 숲의 골짜기와 강둑에서 살았다. 돼지는 피부의 단위면적 당 땀샘 수가 적기 때문에 몹시 더위를 타므로 더위를 식혀줄 서늘한 응달이 필요하게 된다. 더구나 털이 성긴 돼지가죽은 태양광선을 거



석기시대의 멧돼지 그림, 알타미라 동굴(스페인) BC 12,000년 무렵



고대 이집트의 벽화, 이집트 테베의 아네나의 묘, BC 1450년경. 돼지를 농사에 이용하는 모습이다.



새끼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 아마도 먹이를 씹어서 주고 있다. BC 2250년 무렵의 벽화



① 알브레히트 뒤러, 《방탕한 아들》, 동판화. 1496년경. 방탕한 젊은이는 아버지의 집을 나온 후 돼지의 먹이를 탐낼 정도로 몰락했다.
 ② 16세기전반의 독일의 농가, 화가 페트라르카의 목판화의 일부. 나무 밑에 돼지우리가 보인다.
 ③ 돼지의 먹이로 막대기로 도토리리를 떨어트리는 농부, 프랑스 중부의 교회 달력에서, 15세기

의 막아주지 못한다. 응달이 없으면 흙탕물이나 배설물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뒹굴어 체온을 내리려고 하므로 불결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동지역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되새김동물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돼지에게는 인공적인 그늘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뒹굴 수 있도록 따로 물을 준비해야 하고, 인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나 다른 식물성 식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돼지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되새김동물보다 적다. 돼지는 쟁기를 끌지도 못하고 그 털로 옷감을 만들기에 적당치 않고, 젖을 짜기에도 적당치 않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농사에 적당한 땅을 찾아 헤매던 기간 동안에는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황야의 유목민들은 다른 곳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돼지를 더위와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어렵고,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무도 돼지를 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의 형성기 동안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설사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었다 라도 먹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확실히 먹어보지 못하던 익숙지 않은 음식으로서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전통이 정착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이 전통이 이스라엘인들이 정착한 농경이민이 된 오랜 후에도 신의 계율로서 기록되어 유지되고 강화된 것일까?

삼림 황폐화로 중동에서 돼지기르기 쇠퇴

사실 중동의 여러 지역들에서 1만년 동안 양과 염소만큼 오래, 그리고 소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돼지를 길러왔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의 마을에서는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종의 돼지뼈가 발굴된다. 중동의 몇

몇 청동기시대 이전의 마을(B.C. 4000~2000)에서는 제단이나 예 배소로 해석되는 곳 근처에서 엄청난 양의 돼지 유골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제사에서 돼지를 죽여 돼지고기 잔치를 벌였음을 암시한다. 처음부터 돼지는 소나 양, 염소보다 적게 길렸으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돼지를 기르는 일이 중동지역 전체에서 쇠퇴했다는 사실이다.

인류학자 칼톤 쿤은 돼지 치는 일이 전반적으로 쇠퇴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한 최초의 학자였다. 그는 중동에서 돼지 기르기가 쇠퇴한 이유로 삼림의 황폐화와 인구의 증가를 들었다.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돼지에게 빈 그늘과 응덩이뿐 아니라 도토리, 밤, 기타 여러 가지 숲에서 자라는 먹을 것들을 제공하는 떡갈나무와 너도밤나무 숲이 있어 돼지들이 코로 땅을 파며 먹을 것을 찾으며 지낼 수 있었다.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농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곡물, 특히 올리브나무를 심기 위해 떡갈나무와 너도밤나무 숲을 뽑아내기 시작하자 돼지가 서식할 생태학적 조건도 사라져버렸다. 쿤의 생태학적 설명에 최근의 성과를 덧붙인다면 숲이 파괴됨에 따라 숲 가장자리와 초지도 파괴되었고, 대개 숲에서 경작지, 초지, 사막으로 바뀌는 연속적 단계를 밟으며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되새김동물을 기르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돼지를 기르는 것은 점점 더 불리해졌다. 돼지를 키우는 것이 농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명백해졌으며, 이는 돼지의 지위가 낮아진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돼지를 기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고기를 얻기 위해서였다. 생태학적 조건들이 돼지사육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돼지에게는 이를 보충할 만한 다른 기능이 없었다. 결국, 돼지는 쓸모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만지거나 혹은 봐도 안 되는 해로운 혐오동물이 된 것이다. ㉔